서비스업 종사자 全産業의 49%

총 사업체 167만개…京仁지역에 40%집중
술집 8만여곳, 작년 1조3천억원 벌어
오락·文化業 번창… 5년새 200% 급신장

企劃院「86년 7월1일」조사

○…80년대들어 국내산업중 서비스부분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있다. 제조업보다는 음식점·여관·상점·술집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3차산업이 업체수나 일자리 모두 가장많이 늘고있다. 말하자면 소득이나 여가수요의 증가에 따른 산업형태의 선진국型전환으로 지적된다.

경제기획원의 통계상분류로는 제조업근로자수가 3백29만명으로 전체의 37·2%를차지, 단일업종 최고로나타나지만 도소매·음식숙박·변호사·금융·보험·운수업등을 포함하는 넓은의미의 서비스산업으로보면 종사근로자수가 가장많은 4백36만3천명에 이르러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까운 49·3%가 서비스산업분야에 종사하고있는 셈이다.

지난 5년간 제조업체수는 전체의15%에서13%로 줄어들고 고용인력도 38·7%에서 37·2%로 낮아졌다.

반면 병원·이미용소등 개인서비스업체수는 15·7%에서 19·2%로, 변호사와 금융·보험·부동산업체수는 3·9%에서 4·8%로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소득증가에따른 생활수준향상을 반영, 오락·문화서비스관련사업체는 1백20%가 늘었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지난86년7월1일기준으로 구멍가게에서부터 재벌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모든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총사업체통계조사」 내용에따르면 사업체수는 모두 1백67만6천8백9개, 종사근로자수는 8백85만6천6백48명으로 집계되었다.

지난5년동안 사업체는 41만2천6백33개, 종업원은 2백25만3천3백45명이늘어 각각 32·6%와 34·1%가 늘었다. 연평균으로는 사업체수가5·8%씩, 종업원은 6·1%씩 각각 늘어난셈이다.

지역별로는 京仁지역사업체수가 크게늘어 인구집중과함께 산업의중앙집중현상을보여 주목. 특히 수도권신흥도시개발과함께경기도의 사업체수는 61·1%가늘었고 반면 강원도는 19·9%의 가장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사업체의 29%가 서울소재였고 11·1%가 경기지역 다음이 釜山 9·2%, 경남7·7%, 충남·경북 각 6·5%의 순이었다.

○…한편 이들사업체의 93·8%가 종업원10인미만의영세규모. 종업원1~2인의 업체수가 전체의 71·2%나되고 3~4인이 15%, 5~9인이 7·6%였다. 사업체당 평균종업원수는 5·3명으로 5년전조사때의5·2명보다 약간 늘었고 종업원 1~2인의 영세업체구성비도 81년의 75·1%보다는 3·9%포인트가 낮아졌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사업체 1백67만6천6백9개의 60%가 도소매및 음식숙박업으로 가장 많고 병원·이미용소·사우나·종교단체등 사회및개인서비스업이 19·2%(32만1천5백43개), 제조업이 13%(21만8천9백52개)의 순.

○…서비스산업의 두드러진 신장에는 음식점·술집의 번창이 큰몫을 했다.

외식산업의 성업추세와함께 이들업체수가 지난82년의 20만7천80개에서 25만9천4백51개로 25·3%, 종업원수는 52만1천5백명에서 70만8천9백명으로 35·9%가 늘었다.

매출액도 4조6천4백40억원으로 77·5%나 증가했다. 이같은 호황으로 연간매출이 1백억원이상인곳이 2개에이르고 10~1백억원이상 업체수도 43개에 달했다.

특히 대포집을 비롯 비어홀·룸살롱·요정등 술집수는 8만75개소에 이르고 여기에종사하는 유급종업원수만도20만7천7백35명.

8만여개소의 이들 술집 연간 매상총액은 1조3천4백억원규모이고 이를 작년말 20세이상 남녀인구2천7백60만명으로 나눌때 우리나라 성인인구1인당 한햇동안4만8천여원남짓을 술값으로 소비하고 있는셈이다.

○…한편 전국의 종합병원수는 8백52개, 의원은 7천8백58개소, 치과는 3천1백3개소였다.

어린이들을 상대로 근년들어 급증한 전자오락실은 8천5백82개소, 사우나탕은 5천7백65개소나 되었고 극장수는 4백34개소였다.

특히 이들 오락·문화서비스 업종의 신장이 두드러져 업체수가 5년전의 2만2천3백개소에서 4만9천1백91개소로 2·2배이상늘었고 연평균증가율도 24%나됐다.

종교단체는 교회 성당 절등을 포함 3만79개인데 이중기독교가 2만1천39개로 가장많고 불교 6천6백11개, 천주교 1천3백89개, 천도교66개등이었고 이들 종교단체가 고용하는 종업원 수도 성직자를포함 8만1천4백57명으로 종교세의 급신장세를 반영했다.

【金曜雄기자】

◇서비스업사업체 종업원현황

	사업체수	종업원수
사업 서비스		
변호사	871	4,132
공인회계사	154	2,414
건축설계	2,299	19,309
광고대행	454	4,492
사회 서비스		
자연과학연구기관	38	8,183
사회과학 〃	27	1,931
병원	852	80,505
의원	7,858	43,051
치과병원·의원	3,103	9,117
수용복지시설	871	8,904
노동단체	146	1,823
종교단체	30,079	81,457
(불교)	(6,611)	(19,965)
(기독교)	(21,039)	(51,300)
(천주교)	(1,389)	(6,913)
(천도교)	(66)	(174)
(기타)	(965)	(3,105)
오락및문화서비스		
영화관	443	4,078
연극공연장	257	2,000
박물·미술·과학관	68	532
전자오락실	8,582	13,829
개인 서비스		
신발수선	851	1,057
자동차세차장	1,796	3,842
이발소	24,470	47,930
미장원	41,083	63,447
결혼상담소	219	529
예식장	1,183	5,225
장의사	1,579	3,226

※86년7월1일 현재 변호사·회계사등은 유급직원포함。종교단체는 교회당 포함。

동88.4.15

3百23개업체 조사

기업들이 지출하는 기부금과 접대비가 해마다 엄청나게 늘고있다.

14일 韓國신용평가가 浦鐵(오는6월 上場예정)과 3백22개上場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부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기업이 작년에 낸 기부금은 모두 2천4백27억원으로 지난86년의 1천6백88억원보다 무려 43·8%가 증가했다.

또 작년에 사용한 접대비도 1천1백3억원으로 86년도의 1천19억원보다 84억원이 늘었다.

이들기업의 전체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기부금비중은 26·04%, 접대비비중은 11·8%에 달했다.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낸 업체는 浦鐵로 1천72억4천만원을 기록했고 韓一합섬 72억5천만원 大韓항공 50억9천만원 油公 42억2천만원 泰光산업 42억원 起亞산업 32억5천만원등의 순이며 10억이상의 기부금을 낸 기업수가 38개에 이르렀다.

浦鐵이 기부금서열 1위를

기부금지출 상위10社

〈단위=백만원〉

순위	會社名	금액
1	浦項製鐵	107,249
2	韓一합섬	7,254
3	大韓航空	5,095
4	유공	4,219
5	泰光산업	4,204
6	起亞 〃	3,253
7	三美特殊鋼	2,850
8	雙龍精油	2,818
9	錦湖	2,781
10	雙龍洋灰	2,520

접대비지출 상위10社

1,103억

〈단위=백만원〉

순위	會社名	금액
1	金星社	1,912
2	起亞산업	1,721
3	大宇	1,676
4	大韓通運	1,605
5	三星半導體通信	1,546
6	大韓航空	1,532
7	럭키금성상사	1,513
8	鮮京	1,439
9	眞露	1,426
10	綠十字	1,409